인문논총 제74권 제4호 (2017.11.30), pp. 325~359
[DOI] https://doi.org/10.17326/jhsnu.74.4.201711.325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의 측면에서 살핀 김영하 소설의 특질*

김 은 경**

[초 록]

이 글은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디로나’ 인간의 존재지평을 열어주는 이른바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 소설에 미친 영향을 김영하의 소설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전대소설과의 비교 논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감정의 문제와 시공간성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는 감정경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1월 22일에 개최한 한국현대문학회 2016년도 제1차 국제학술대회의의 자유발표 세션에서 발표한 바 있다.

**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주제어: 유비쿼터스-시공간성, 시공간성의 재편, IT (정보기술), 존재 지평, 초월, 소설의 우연성, 접속의 접근성, 즉물적 섹스,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 감정의 맥놀이현상, 김영하

Ubiquitous-*Sigongganseong*, Reorganization of *Sigongganseong*, IT (Information Technology), Prospect in Existence of Human Beings, Transcendence, Contingency of Novels, Accessibility of Access, Practical Sex, Ever-Present Possibility of Access, *Mecnory Hyunsang* (Beat Phenomenon) of Emotion, *Young Ha Kim*

www.kci.go.kr

2장에서는 김영하의 소설이 IT (정보기술) 뿐만 아니라, 교통, 방송의 발달에 힘입은 시공간성의 재편 양상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되거나 현실-관여적 방향으로 압축되는 인물의 존재지평을 여실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존재지평이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되는 경우를 통해서는, '초월'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대소설과의 관련성을 짚어 보았다. 김영하의 소설이 이와 관련하여 전대소설의 전통과 단절됨과 아울러 전대소설을 계승하는 두 측면 모두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존재지평이 현실-관여적 방향으로 압축되는 경우를 통해서는, 재편된 시공간성 하에서 소설의 '우연성'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정보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접속'의 문제를 남녀관계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디로나'열려 있는 '접속의 접근성'이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즉물적 섹스'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감정이 이미 개제된 남녀관계일 경우 이러한 '접속의 접근성'이 감정점화의 속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온・오프라인상으로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이 '감정의 맥놀이현상'을 가능케 함을 논하였다. 감정의 맥놀이현상이란 서로 다른 파장의 감정선을 지닌 남녀의 관계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양상을 의미하는바,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이 이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글은 정보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유비쿼터스하게 재편된 시공간성이 '오늘날의 소설'에 미친 영향을 전대소설과의 관련선상에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감정경제'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www.kci.go.kr

1. 서론

고소설에서부터 ‘오늘날의 소설’[1]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소설의 시공간성은 여러 차례 재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설사를 크게 보았을 때, 고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오늘날의 소설’로 구분하여 그 시공간성의 양상이 수차례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겠다.[2]

고소설에서는 초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시공간이 현실적인 시공간과 공존하는 가운데 작품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현실적인 시공간성 대비 탈-현실적인 시공간성의 이원구도는 주로 ‘초월’, ‘이상향’ 등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고소설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의식을 탈-현실적인 시공간성 내에서 해결하려는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3] 신소설에 이르면 시공간성의 탈-현실성은 지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신에 신소설을 통해서는 그 시공간성이 현실의 지도 내에서 대폭 확장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저승, 이상향, 은둔처, 도피처 등과 같은 탈-현실적인

1) 이 글의 논점인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을 논할 수 있는 배경, 즉 정보기술(IT)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온・오프라인상으로 지구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시기부터 발표된 소설들이 이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겠다. 특정하게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발표된 소설이 이에 해당한다.

2) 일찍이 미하일 바흐찐은 그의 논문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에서 크로노토프를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으로 정의한 가운데, 고대 희랍 로맨스, 르네상스기의 라블레의 작품, 19세기 괴테의 교양소설에 이르기까지 긴 서사문학의 역사를 통해서 크로노토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미하일 바흐친(1988), 전승희 외 역,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서울: 창작과 비평사). ‘오늘날의 소설’에서 재편된 시공간성이 소설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기획은 이러한 바흐찐의 논문에 빚지고 있는 바가 크다.

3) 설성경(1991), 『한국 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설성경・박태상(1986),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www.kci.go.kr

시공간성이 사라진 자리에 동시대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가 신소설의 시공간성을 이루고 있음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4] 신소설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대의 시대 현실을 이와 같은 시공간성 내에 배치함으로써, 여러 인물들의 행보가 교차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 '우연성'이 작품의 불가피한 요소로서 자리하게 된다.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탈-현실성 및 우연성이라는 요소들은 고소설 및 신소설을 현대소설의 주류들과 구분 짓는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환상성이 개재하는 일부 소설들을 제외하고 볼 때) 현대소설은 그 시공간성의 현실성을 핵심요소로 한다 할 수 있겠으며, 그 결과 전대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가피한 우연성이 잦아진 자리에서 개연성과 핍진성이 성취되는 장르라 하겠다.[5] 이 글의 논의는 이러한 현대소설 내에서도 '오늘날의 소설'을 따로 범주화하여 '오늘날의 소설'이, 시공간성의 측면에서 압축한 소설사의 흐름 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노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정보기술(IT)의 급진적인 발전은 현실의 시공간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

4) 전광용(1993), 『신소설 연구』, 새문사.

5) 한국 근/현대소설에 대한 연구사를 통해 볼 때, 시공간성을 주된 논제로 삼은 논문은 흔하지 않다. 특히, 작품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시공간성', 즉, 시공간성의 크기 및 양태, 시간성과 공간성의 관계 등과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필자는 바흐찐이 정의한 크로노토프 개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가운데, 2013년 이후 '감정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음은 시공간성 개념을 사회・역사적 현실, 혹은 장소성과 관련하여 정립한 가운데 진행된 연구사이다. 김미영(1992), 「1920년 전후 한국소설의 크로노토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욱(1998),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의 시간-공간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정일(1998), 「한국전쟁의 시공간성과 1960년대 소설의 새로움: 하근찬을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40, 한국언어문학회, pp. 637-659; 김승환(2012), 「한국근대소설과 부산의 시・공간성 : 김동리의 <밀다원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pp. 63-90.

6) 필자는 본고의 논의와 맥락이 닿는다고 볼 수 있는, 미디어의 발전이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 보았는데, 이 역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www.kci.go.kr

그러한 추세는 이러한 당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날의 소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글은 이를 전제로 하여 우리 소설의 시공간성 재편 과정 내에서 ‘오늘날의 소설’이 새로운 범주로서 자리함을 논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을 핵심 개념으로 정립하여 김영하의 소설들을 살피기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이르는 말이다.[7] 이 글은 라틴어인 이 단어의 기본 뜻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인 것에 착안하여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의 개념을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잡을 것이다. 이른바 이 글에서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란, 휴대폰・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세계를 지구촌으로 압축시키는 데 기여한 교통의 발달,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일상화된 방송 등에 힘입어 ‘인간의 존재 지평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디로나 열려 있어 온라인상으로나 오프라인상으로 사람들 간 접속의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8] ‘오늘날의 소

것으로 드러났다. 몇 개의 연구사를 통해 그 논의의 방향을 첫째, 새로운 미디어에 접하는 인물의 입장을 중심으로 문학이 미디어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밝힌 것, 둘째, 다양한 미디어(문자 미디어, 소리 미디어, 영상 미디어 등)를 이용하여 고전문학을 재매개하는 문제를 다룬 것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미디어의 발전이 소설의 시공간성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만수(2010),「미디어의 보급에 대한 문학의 대응 : 신문에서 인터넷까지」,『한국현대문학연구』32, 한국현대문학회, pp. 541-568; 임형택(2016),『문학미디어론 — 무한의 시학과 미학, 춘향전 은하계의 탐사로부터』, 소명출판.

7) 「유비쿼터스(Ubiquitous)」,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2016.1. 9. 참조; “Ubiquitous”, *The Hutchinson Pocket Dictionary of Difficult Words*, Abingdon: Oxon Helicon Publishing Limited, 2005, p. 870.

8) 마셜 맥루헌은 1964년에 초판이 간행된 그의 저서『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인간을 확장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논한다. 그는 기계시대가 인간의 신체를

www.kci.go.kr

설' 가운데 특별히 김영하의 소설에 주목하는 것은, 장편『퀴즈쇼』가 대표하듯이, 그의 소설들은 이러한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을 배치한 가운데 거기에서 기인하는 여러 특질들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김영하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시적인 소설의 시공간성 재편 과정 내에서,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확장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장에서는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 구축된 작품 내에서 인물의 존재지평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는가를 전대 소설들과의 관련 내에서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소설에서의 탈-현실적인 초월, 신소설에서의 우연성 등의 문제가 '오늘날의 소설'에서도 잔존하되 새로운 외장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2장에서의 논의가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관련하여 인물 개개인의 존재지평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어질 3장의 논의는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의 주된 구상적(具象的)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상존하는 접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물 간 관계 양상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다. 3장의 논의를 통해서는 특별히 상존

공간적으로 확장해 왔다면, 전기 기술 시대에 접어든 지 1세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다른 행성은 차치하고 최소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소멸시키며 우리의 중추신경체계 자체를 전 지구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미디어의 발달에 주목하여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으로서 이해하는 원리를 찾고자 한다. 필자는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마셜 맥루헌이 50여 년 전에 그의 저서를 통해 궁구한 바가, 보다 예각적인 명제로서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될 본고의 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원적인 존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시공간성의 문제가 단순한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재지평—여기에는 초월과 우연성의 문제가 포함된다—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허버트 마셜 맥루헌(2011), 김상호 역,『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p. 5-11). / 한편 미디어 연구에 크로노토프 접근을 제안하고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이재현의 논문은 본고의 논점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다(이재현(2014),「미디어 이용의 시공간적 매핑-크로노토프 접근과 그 적용」,『언론정보연구』51:1,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pp. 214-250).

www.kci.go.kr

하는 접속 가능성이 남녀인물의 감정양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겠는바, 이는 필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감정경제’의 문제[9]를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의 관련 내에서 확장해 나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10]

2.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존재지평의 양방향성

먼저 김영하의 소설들에 ‘유비쿼터스-시공간성’ 개념을 대입하여 논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작품의 소재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작품들에는 인터넷, 삐삐, 핸드폰, 방송, 해외여행 등의 소재가 많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소재들은 단순한 소도구적인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라이트모티프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소재적인 측면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색은 바로 인물 간의 만남이 대체로 여러 매체들이나 여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소설에서 인물간의 관계형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그 가운데 중개인의 존재나 사회적인 만남

9) ‘감정경제’ 논의란, 감정의 양적・질적 측면을 시공간성과의 상관관계 내에서 규명한 것으로서, 필자는 다음의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이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다(김은경(2014),「소설에 나타난 ‘감정경제’ 정식화(定式化)를 위한 시론(試論)」,『박경리 문학 연구-움직임動과 멈춤靜의 상상력』, 소명출판, pp. 462-652).

10) 다음은 이 논문의 기본 자료이다. 단편집 : 김영하(2013),『호출』(3판), 문학동네; 김영하(2010),『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문학동네; 김영하(2011),『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동네; 김영하(2011),『오빠가 돌아왔다』, 문학동네. / 장편 : 김영하(2012),『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3판), 문학동네 ; 김영하(2015),『퀴즈쇼』(2판), 문학동네; 김영하(2010),『아랑은 왜』, 문학동네. * 이하 본문의 인용은 내각주로 처리한다. 단편집의 경우 차례로 ①②③④의 원문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호출』에 수록된 단편을 인용한 경우 다음처럼 내각주를 붙인다(①, 인용면수).

www.kci.go.kr

의 장의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하의 소설에서 나타난 인물들 간 만남에서 이와 같은 장치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마지막의 특색은 김영하의 단편을 통해 거론해 볼 수 있다. 단편,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③)은 이러한 두 가지 특색들을 종합하면서 '유비쿼터스-시공간성' 개념을 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작품은 헤어진 애인을 잊지 못하여 그가 준 삐삐에 강박적 반응을 보이는 여성인물의 에피소드를 한 축으로 하면서, 그 여성인물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성적 관계를 맺었던 남자주인공(그 남자)이, 다시 삐삐를 건네 준 옛 애인과 결혼해 버린 여성인물과 헤어진 이후, 폐허가 된 유적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 여행을 하는 서사를 주축으로 하여 전개된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들어 봐야만 존재하기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③, 277) 달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여자와의 만남을 반복하는바(여기에는 환상성이 개재한 것으로 읽힌다), 본고는 여기에서 인물 간 관계 형성에서 시공간성의 제약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은유를 읽는다. 접속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이른바 달은 '어디에도 있'지만, 고개를 들어 보지 않으면 '어디에도 없는' 것과 같이, 인물 간 관계 또한 접속의 매체가 상존하기에 그 마음의 향방에 따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은 김영하 소설에 '유비쿼터스-시공간성' 개념을 대입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하겠다. 본고는 김영하의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특색들을 논의의 배경으로, 2.1.절에서는 상용화된 정보기술이 우리의 현실을 현실-유리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2.2.절에서는 지구촌화된 현실 세계에서 온・오프라인상의 접속이 이 세계를 압축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의 양방향성이 '오늘날의 소설 장르'에 미치는 영향을 덧붙이고자 한다.

www.kci.go.kr

2.1. 정보기술의 상용화와 현실-유리적 방향으로의 확장

김영하의 소설들에서는 인터넷의 ‘창’에 접속함으로써 인물의 존재 지평이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되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 글은 그와 같은 존재 지평의 확장이 갖는 의미를 오프라인현실과의 관련 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창이 개시(開示)하는 현실-유리적 세계[11]와 오프라인현실 간의 관계는 전대의 소설에서 중요한 장치로서 자리하는 현실세계와 탈-현실적 세계라는 이원적 시공간성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이 글은 김영하 소설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인터넷의 창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이원적 시공간성의 문제를 전대 소설과의 관련 내에서 살피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영하 소설은 이와 관련하여 다층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은 이러한 시공간성 구조가 전대 소설에서 엿보이고 있는 ‘초월’의 의미와 접맥되는 측면을 보이는가 하면, 보다 두드러지게는 그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후자의 경우부터 살피기로 한다. 「삼국지라는 이름의 천국」(①), 「바람이 분다」(③), 장편 『퀴즈쇼』 등의 작품에서 인터넷의 창을 통해 확장되는 시공간성은 천하통일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원의 세계, 불법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세계, 주기적으로 퀴즈쇼를 하여 큰돈을 벌어들이도록 하는 ‘회사’의 세계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공간성은

11)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현실-유리적 삶의 지평은 현실공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고는 이 모두를 아울러 인터넷이 개시하는 세계인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가 매일의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접한다는 점만을 고려할 때, 인터넷의 본질은 현실-유리적이라기 보다 현실-관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인터넷을 통한 시공간성의 현실-유리적 확장에 주목하는 것은 김영하 소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초월’의 의미와 결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모두 온라인상에서 출발하여 오프라인현실로 연장된다는 점, 현실-유리적 성격을 띤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존재 지평이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형성되는 사이버현실을 현실과 분리되는 것으로서 보기는 어렵다. 그 방향성이 현실-유리적이라 하여, 그 세계와 현실 간 관계의 끈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하 소설에서 이러한 사이버현실에서의 존재 형상은 현실에서의 존재 형상과 유기적인 관계의 맥락을 형성하면서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한다. 인터넷의 창에서의 현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인물의 존재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현실세계의 존재 형상과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창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이버현실의 방향성이 현실-유리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현실과 사이버현실을 이원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둘의 관계는 말 그대로 '스위치(Switch)'에 의해 여닫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질적인 삶의 국면들인 것이다. 따라서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이원적 시공간성 하에서 어느 한 편의 삶이 다른 한 편의 삶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초월'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열거한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서 슬쩍 비켜서"(③, 241)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인터넷의 창을 통해 접속하는 현실-유리적 시공간은 그러한 그들의 삶의 연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작품에서는 인물의 삶의 방식과 인터넷의 속성이 맞물리면서 그들의 존재지평이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오프라인상으로는 외부 세계를 향한 통로가 차단된 배경묘사에 의해 확연하게 적시된다. 세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바깥세상으로 향한 창이 없는 지하 셋방, 지하의 상가, 고시원의 좁은 방 등 인터넷의 '창'만이 열려있는 환경에서 거주하는데, 그들이 그 빌게이츠의 '창'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의 시공간성은 현실-유리적인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그와 같은 확장이 갖는 의미를 인물

www.kci.go.kr

이 처한 현실과의 관련 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단편 「삼국지라는 이름의 천국」(①)은 이러한 본고의 입장을 잘 뒷받침 해준다. 본업인 자동차 영업은 뒷전에 두고 인터넷 게임(삼국지)에 빠져 사는 운동권 출신의 세일즈맨이 주인공 ‘그’로 등장하는 이 작품은 그가 몰입하는 삼국지 게임과 그가 처하였던 현실 및 그가 현재 처한 현실 간의 관계가 상관적인 것으로서 그려진다. 그는 빛이 들지 않는 지하 셋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삼국지라는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면서 보내는데, 이때 그의 존재 지평은 천하통일을 위해 싸우는 중원의 세계로 확장된다. 그런데, 빛이 들지 않아 오프라인상으로는 외부와 단절된 듯한 그의 지하 셋방에서 울리는 전화와 삐삐의 발신음은 이러한 그를 반복하여 현실세계로 불러내는 역할을 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날 하루 그는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는다. 하나는 과거 함께 운동권에 참여하였던 대학 동기들의 모임을 알리는 전화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실적이 나쁜 그를 채근하는 지점장의 전화이다. 이들 전화는 사이버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그를 현실로 불러들이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의 전화는 그가 몰입하는 인터넷의 게임 세계와 상관적인 관계의 맥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중원을 배경으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천하통일을 위한 작전을 세우고 실천하기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 간의 괴리에서 비롯하는 패배감 내지 자괴감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서 보인다. 그는 이른바 운동권 학생으로서 현실 변혁을 위해 그의 청춘을 불살랐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그, 그리고 그와 “우리”라는 대명사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과거의 이력을 무용담처럼 주고받는 기성 세대화되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 간의 괴리에 쉽게 순응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려지며, 천하통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삼국지 게임에의 몰입은 이와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www.kci.go.kr

때, 삼국지 게임을 통해 확장되는 현실-유리적인 시공간성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의 존재지평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12)]

그러나 그를 닦달하는 지점장의 삐삐와 전화는 중원에서 천하통일을 꾀하는 그와 현실의 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환기시켜 준다. 양자는 스위치에 의해 여닫을 수 있는 이질적인 국면들로서 자리할 뿐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인터넷의 창이 열어주는 사이버세계가 현실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현실과 사이버현실 간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실-유리적인 또 다른 세계, 그것은 전대 소설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서 자리하곤 하는 '초월'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스위치에 의해 전환되는 삶의 이질적 국면들일 뿐이라는 점에서 초월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장편『퀴즈쇼』를 통해서도 원점회귀의 방식으로 '스위치'되는 이질적인 두 세계를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민수 또한 현실로부터 비켜선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데, 그가 빛이 들지 않는 고시원의 쪽방에서 접속하는 인터넷의 창은 그를 퀴즈쇼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는 퀴즈쇼 동호회 사이트를 거쳐 현실과 유리된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퀴즈쇼를 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고유명사가 아닌 단지 보통명사 '회사'로 지칭되는 '회사'는 추상적인 세계이기도 하다. '회사'는 그곳의 일원인 유리라는 인물에 의해 육체와 분리된 정신이 탑재된 알레프라는 우주선으로서 인식되기도 하는 곳으로써, 일상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지식의 각축전인 퀴즈쇼만을 위해 운영되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일종의 "웹하드"와 같은 곳으로서, '회사'는 각종 정보가

12) 마셜 맥루헌은 게임이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습관화된 패턴에서 벗어나" "인간 의식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체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허버트 마셜 맥루헌(2011), pp. 416-422).

www.kci.go.kr

범람하는 인터넷의 세계를 비유하는 곳으로 볼 수 있겠다. 이곳에서 이민수는 “초월적인 것을 생각”(431)하게 된다. 각종 뉴스의 홍수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회사’ 외부의 공간에서의 삶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에 그들이 벌이는 지식의 각축전은 추상적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민수가 생각하는 “초월”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고전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초월’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경유하여 이민수에게 열린 ‘회사’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는 각기 삶의 한 방향성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연결되지만, 결국은 ‘스위치’되는 이질적 삶의 기반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이민수의 행보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그는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남녀관계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곳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잃고 ‘회사’로부터 탈출하여, 무일푼 백수이자 갈 곳이 없는 원점회귀의 상태가 되어 ‘회사’ 외부의 현실세계로 복귀하기 때문이다.[13]

앞에서 살핀 두 작품의 경우만 놓고 볼 때, 인터넷이 개시하는 존재지평 확장과 관련하여 김영하 소설이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오프라인에서의 삶의 방식과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의 일환이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두 세계가 단순히 ‘스위치’한다는 점은 사이버세계의 본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하의 단편 「피뢰침」[14]과 장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두 작품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한 작품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주목된다. 이들 작품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개시되는 세계는 오프라인세계와 단순히 스위치되

13) 「바람이 분다」에서 남녀 주인공이 꿈꾸는 세계일주여행의 모티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14) 「피뢰침」은 전격(電擊)체험을 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꾸리는 ‘아다드’라는 인터넷 동호회의 활동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삭제한다. 이하 한정된 지면을 고려하여 상당수 작품들에 대한 상세 논의를 삭제한다.

www.kci.go.kr

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의 관계를 통해 상승작용(역동성)을 낳고 있기에 주목된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주인공은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여 자살을 돕고, 자살자의 사연을 '소설'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소설'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되, 그가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의존하는 ARS라는 시스템에 먼저 주목해 보자. 그는 자살충동을 갖는 사람이 가는 장소, 향유하는 예술작품 등을 단서로 자살예정자를 물색하는가 하면, 신문에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13)라는 암시적 문구의 광고를 내서 컴퓨터가 연결된 ARS를 통해 자신의 "의뢰인"을 찾는다. 이른바 자살이라는 금기의 영역에 들어서는 과정에 익명이 보장되는 ARS가 매체가 된다는 점은 이 글의 맥락과 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존재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의식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현실-유리적인 존재지평의 확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살자의 삶과 자살의 과정이 자살을 돕는 일을 하는 주인공이 쓰는 '소설'을 통해 '미학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는 자살을 금기로서가 아니라 한 존재가 그 존재의 지평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으로 보고, 죽음을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일종의 '의식(儀式)으로서' 고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죽음에 대한 초월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자살 조력자인 '나'가 '소설'의 집필을 통하여 죽음의 예술적 승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나'는 자살을 행하는 두 명의 여성인물들에게 예술작품(서양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격을 부여한 가운데 죽음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이러한 과정, 즉 살인과 창작을 통해 그 스스로가 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또한 일종의 '초월'에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고백이라 하겠다.

www.kci.go.kr

이상 정보기술의 상용화에 힘입어 인물의 존재 지평이 현실-유리적인 방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오프라인현실과 분명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세계이되, 김영하의 소설에서 그 관계의 양상은 다층적인 것으로서 드러남을 논의하였다. 단순히 ‘스위치’ 하는 관계이거나, 초월의 의미를 내포하는 관계임을 살폈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소설의 시공간성의 재편이 소설 전통의 흐름 내에 놓임과 아울러 그와 다른 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었다.

2.2. 지구촌적 네트워크와 현실–관여적 방향으로의 압축

본 절에서는 김영하 소설이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방송의 일상화, 세계여행의 보편화 등에 힘입어 지구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존재의 지평이 현실-관여적 방향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민감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시공간성 재편이 소설 창작에 미친 영향을 ‘우연성’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소설에서 ‘우연성’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만, 그 ‘우연성’에 ‘개연성’의 잣대를 대어서 그 정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하 소설에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우연성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우연성에 ‘유비쿼터스-시공간성’ 개념을 대입할 때, 그것의 외연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바 본 절의 논의는 여기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여행」,[15] 「보물선」은

15) 머피의 법칙이 서사전개원리가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는 핸드폰의 부재함이 라이트모티프로 작동하는 작품이다. 시공간성을 압축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부재를 통해, 그것의 기능을 적실히 방증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행」은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공간에서 보낸 삶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사의 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정보기술의 시공간성 압축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www.kci.go.kr

핸드폰,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이 현실-관여적 방향에서 시공간성을 압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물선」은 뺑뺑이 혹은 작전이라고 불리는 주가조작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일군의 사람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호텔에서 조찬정보모임을 하면서, 머니게임의 방식을 취하거나 M&A를 통해 세운 상장회사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조작을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바는 허황한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켜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언론과 인터넷의 힘이다.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얻어내는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언론에 정보를 흘려주고 여의도와 테헤란로를 오가면서 "느긋하게 전광판의 단풍잎이나 감상"(④, 96)하면서 이루어낸다. 그리고 부팅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언제나 켜놓은 컴퓨터를 통해 뉴욕증권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세계"의 안위까지를 알아낸다. 이른바 국제적인 증권시장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한 국가의 증권시장 판도를 "키보드 몇 번 두드려"(④, 99)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컴퓨터의 키보드에 한 국가 나아가서 세계의 정세가 압축되어 있으며, 그것이 현실에 "작전"을 거는 이들의 존재 지평을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나' 열어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영하의 소설은 이렇게 핸드폰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현실이 자판 몇 개에 압축되어 존재의 지평을 유비쿼터스하게 열어주는 상황을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자의 존재 지평을 가진 인물들 간 시공간성을 압축하여 주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의 소설은 방송 또한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나' 방출되는 방송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자리하는 인물들이 그 방송이 내보내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누는 순간 동일한 존재 지평의 범주 내에 묶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준다.

이제 김영하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갑작스럽고 우연한 만남'들에 논의의 초점을 모아보자. 핸드폰, 인터넷, 방송 등이 세계를 압축적으로 묶

www.kci.go.kr

어주는 상황을 여실하게 재현해 내고 있는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 간 ‘갑작스럽고 우연한 만남’은 더 이상 작위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등장한다. 장편『퀴즈쇼』의 남녀 주인공 이민수와 서지원의 만남에 주목해 보자. 현실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오프라인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오대양을 항해하는 선주의 딸로서 평창동의 저택에서 생활하고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는 서지원이 무일푼의 백수이자 사생아로 고시원의 쪽방에서 생활하는 이민수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일이 오프라인현실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 대한 소설적 개연성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소설은 ‘퀴즈’라는 공통의 관심사만으로 두 사람의 존재지평을 압축해 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역할을 내세움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있다.

퀴즈쇼 채팅 사이트에서 ‘귓속말’ 기능을 이용해 서로의 신상을 파악하고 호감을 표현한 두 사람이 오프라인현실에서 만나도록 가교가 되어주는 방송의 역할 또한 주목할 만하다. 김영하의 소설에서 방송은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도 있는 일상화된 매체로서 등장한다. 이민수는 상금획득과 ‘벽속의 요정’(서지원)과의 만남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방송국의 퀴즈쇼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실제로『퀴즈쇼』에서는 두 사람이 방송출연자와 그 방송의 구성작가라는 신분으로 오프라인현실에서의 만남을 실현하지만, 이 소설은 그와 같은 방식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방송을 매체로 하여 같은 출연자로서 혹은 출연자와 시청자로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김영하의 소설에서는 매체가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 매체가 만남을 주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소설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물 간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들 혹은 중개인의 역할이 비중있게 자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보기술과 방송 등의 상용화로 네트워크화된 지구촌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설에서의 우

www.kci.go.kr

연성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매체가 만남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공간성이 압축되고 존재의 지평은 유비쿼터스하기에, 만남의 범역이 넓어지는 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연성의 외연은 좁아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단편 「퀴즈쇼」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남녀 주인공들이 방송국 퀴즈쇼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만나게 된다. 그들이 같은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하였다는 사실은 일견 우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과의 만남을 함께 이룬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 우연성이 개연성 있는 서사전개와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은 두 사람만의 우연한 만남이 아닌, 여러 지인들과의 동시적인 접속을 주선함으로써 두 사람 간 관계의 공백지대를 채워주는데 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는 교제를 밀도 있게 진행하게 된다. 김영하는 우연한 만남을 통한 교제라는 모티프의 개연성을 방송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영하는 그의 소설에서 우연성과 개연성이 같은 편에서 서사전개를 이끌어가는 양상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밀회」, 「마코토」같은 오프라인현실, 즉 해외에서의 '우연한 재회'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들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두 작품에서 또한 우연성이 소설의 개연성을 해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가 지구촌으로 압축된 현실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얻는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핸드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방송, 그리고 교통의 발달이 존재의 지평을 압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현상이 현실-관여적 방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비쿼터스-시공간성 하에서 소설의 우연성 개념이 개연성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www.kci.go.kr

3.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인물 간 관계의 양상

2장에서는 정보기술의 상용화, 방송의 일상화 등이 소설의 시공간성을 재편함으로써 인물의 존재지평에 변화를 낳고 있음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변화가 소설 장르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흐름 내에서 조망하여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기술이 낳은 시공간성의 특질이 인물 간 관계, 특별히 감정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16] 따라서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관련하여서는 온・오프라인상의 ‘접속’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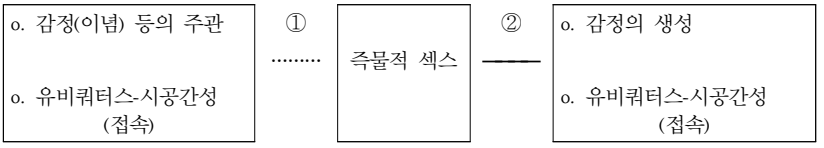
김영하의 작품에서는 남녀가 만나자 마자 곧바로 섹스를 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김영하는『아랑은 왜』를 통해 이와 같은 남녀관계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담론의 방식으로 펼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인류가 ‘선 애정 후 정사’의 공식을 남녀관계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오랜 인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 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섹스는 사랑보다 먼저였다”(105-106)는 점을 환기시켜 준다. 작품을 통해 작가 스스로가 내세운 이러한 입장에 호응하듯 그의 작품에서는 ‘선 애정 후 정사’의 공식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전도하는 남녀관계의 양상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남녀관계에서, 감정 등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하게 육체적인 교섭으로서 이루어지는 섹스를, ‘즉물적 섹스’라 칭한다.

김영하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즉물적 섹스가 이루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단계에서 각각 <즉물적 섹스>가 <감정 및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16) 필자는 기존 연구를 통해 감정의 질적・양적 양태와 시공간성 간의 관련성을 감정경제라는 개념으로 집약하여 동서고금의 여러 작품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본장의 논의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진다 할 수 있는데, 특히 3.2.절의 논의는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할 수 있다(김은경(2014), pp. 462-652).

www.kci.go.kr

맺는 관계의 성격을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일반화해 볼 수 있다.



① ····· 관련성이 없거나, 느슨한 관련성을 갖는다.
② _____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물적 섹스가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에서, <감정 및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즉물적 섹스> 간의 관계는 느슨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즉물적 섹스에서부터 시작한 남녀관계의 추이에 있어서는 <즉물적 섹스>와 <감정/유비쿼터스-시공간성>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을 김영하 소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성으로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번 장에서 전개할 논의의 큰 틀이 되기에 각 절에서의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제시한다.

3.1. 접속의 접근성과, 즉물적 리비도의 발현

김영하는 그의 소설을 통해 전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영하의 「거울에 대한 명상」, 「너의 의미」 등의 작품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은 즉물적 섹스와 사랑의 감정이 무관함을 잘 보여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살필 수 있는 김영하 소설의 의미 있는 지향성은 바로, 사랑/이념 등의 주관이 개입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남성인물이 섹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로봇」, 「베를 가르다」, 「고

www.kci.go.kr

압선」, 「전태일과 쇼걸」 등의 작품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로봇」과 「고압선」은 즉물적 섹스를 통해 최고의 쾌락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곧바로 결별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다. 이러한 내용의 두 작품은 감정과 섹스가 전혀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베를 가르다」와 「전태일과 쇼걸」 또한 감정/이념과 같은 주관이 섹스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와 달리, 앞서 언급한 「거울에 대한 명상」, 「너의 의미」, 「로봇」, 「고압선」을 비롯하여 「도마뱀」, 「나는 아름답다」, 「바람이 분다」, 「퀴즈쇼」, 「비상구」, 「너를 사랑하고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아랑은 왜』 등의 여러 작품에서는 감정 개입이 없이 행해지는 즉물적 섹스가 등장한다. 본고는 이를 IT기기를 통한 ‘접속의 접근성’[17]과 연관 지어 고려해 보기로 한다.

「호출」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던져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주인공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마주친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는데 그 여자에게 삐삐를 주고 내리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 상상은 남녀주인공 각각의 편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남자주인공의 상상에 해당한다. 본고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여자주인공의 육체성에 치중한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남자주인공의 상상 속에서 그 여자주인공이 속옷 모델에서 출발하여 정사 장면 대역 배우로 일하는 것으로 설정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삐삐를 통해 처음 보는 여성과의 접속을 쉽게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상상이 그 여성인물의 육체성에 대한 상상과 직결된다는 점은 IT기기를 통한 접속의 접근성과 즉물적 섹스 간의, 그 연계가 비록 느슨할지라도, 관련

17) 접속의 접근성이란,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나’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비쿼터스한 상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터넷 등을 매개로 한 접속 자체가 이미 접속하는 대상 간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www.kci.go.kr

성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상상 속에서 여성인물에게 접근하고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서는 「내 사랑 십자드라이버」, 「마코토」 등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전통적인 연애의 과정이 삭제되어 있다. 접속이 곧바로 에로티시즘으로 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접속의 접근성과 즉물적 섹스 간의 관계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겠다.[18]

한편, 장편 『퀴즈쇼』는 본 절의 지금까지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속의 문제와 감정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감정경제'의 측면에서 보다 흥미로운 쟁점이 된다 하겠다. 또한 다음 절 논의와도 의미 있는 대비를 이루기에 여기에서 살피기로 한다. 이 작품은 접속의 접근성이 사랑의 감정을 빠른 속도로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남녀 주인공은 퀴즈방이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사랑의 예감을 갖게 되는데 작가는 이를 "언어로 나누는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가는 실체적인 만남을 갖기 이전의 "언어로 나누는 사랑"이 남녀관계의 풍속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른바, "선(先) 사랑 후(後) 확인"[19]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남녀인물들은 접속의 매체인 인터넷에서의 언어의 어우러짐을 통해, 만남 이전에 이미 충분한 사랑의 예감 속에서 사랑을 키워왔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수가 서지원과 첫 만남을 가진 직후에, 그녀가 곧바로 핸드

18) 「퀴즈쇼」, 「너를 사랑하고도」, 『아랑은 왜』 등의 작품들이 이러한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바, 이와 관련된 상세논의는 삭제한다.

19) [인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인간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 사랑을 고백한 후, 그 열정이 받아들여지면 만나서 연애를 했다. (…) **그러나 요즘의 어떤 인간은 먼저 사랑에 빠진 후에야 그 사람이 두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 연애를 진전시키기 위해 나처럼 이렇게 육신을 움직여 '만남의 광장'으로 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녀 사이에만 그런 식의 만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선(先) 사랑 후(後) 확인.** 우리는 흠모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밤을 새워 읽은 작품을 쓴 작가의 사인회에 가서 잘 알아보기도 어려운 글자 몇 자를 얻어오기도 한다(183).

www.kci.go.kr

폰으로 연락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24시간 동안 “마음의 지옥”(224)을 체험하는 과정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접속의 접근성이 감정 점화에 속도를 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김영하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즉물적 섹스의 양상을 감정의 문제 및 접속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접속의 접근성이 감정의 생성과정을 생략한 가운데 곧바로 즉물적 섹스에 돌입하는 양상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김영하의 소설은 접속의 접근성이 만남 이전의 언어적인 접속과정을 통해 감정 점화를 가속시키는 양상을 보이는바, 이는 다음 절에서 살피게 될 감정의 맥놀이현상과 대비를 이루면서 주목된다.

3.2.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과 ‘감정의 맥놀이현상’

김영하 소설은 남녀인물들이 육체적 교섭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육체적 교섭>과 <접속 및 감정> 간의 관계를 미약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과 달리, <즉물적 섹스>로 시작된 남녀관계의 추이는 <감정 및 접속>의 문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내 보인다.[20] 여기에서는 특별히 육체적 교섭과 동시에 시작된 남녀관계가 끝을 맺은 뒤에 연애감정이 새로운 국면에서 끊어질듯 이어지는 양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본고는 이에 ‘감정의 맥놀이현상’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가운데 논의를 전개해 가겠다.

이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드리」라는 단편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화자인 30대의 남자주인공은 자신이

20) 김영하 소설은 대표적으로 「비상구」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남녀 인물들이 ‘선 애정 후 정사’의 도식을 전도한 ‘선 정사 후 애정’의 과정을 거치게 됨을 나타내 보인다. 가출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비상구」는 즉물적 섹스로 맺어진 남녀관계에서 감정이 싹트는 양상을 보여준다.

www.kci.go.kr

20대에 겪은 사랑과 30대에 진행하고 있는 사랑이 반복됨을, 반복과 변주로 이루어진 '도드리'라는 국악의 7악장을 소설 분장의 단위로 삼아, 이야기로 풀어 나간다. 이 소설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바는 그의 두 번에 걸친 사랑이 모두 동시에 불붙어 일어나는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20대의 동기, 30대의 여자 모두에게서 자신과는 이질적인 감정패턴을 인지하는 가운데, 동기와의 관계를 부적절한 수단을 써서 이어가는가 하면 독소와도 같은 지나간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기다리기도 한다. 본고는 이처럼 '이질적인' 감정의 파장을 국악에서의 '맥놀이 현상'에 빗대어 나타내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감정의 파장이 '끊어질 듯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맥놀이현상의 또 다른 주요 특질이기도 하다.[21] 김영하의 소설은 미세하게라도 그 파장을 달리하는 감정선이 남녀인물들 사이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는데, 본고는 이러한 '감정의 맥놀이현상'이 정보기술의 상용화에 힘입어,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양자의 관련성을 비교적 확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작품에는 「전태일과 쇼걸」, 「여행」, 「당신의 나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등이 있다. 「여행」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에 대해서는 각각 존재지평의 압축을 논한 절과 유비쿼터스-시공간성 개념을 정립한 2장의 도입부에서 논의한바 있거니와, 이를 고려한 가운데 여기에서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22]

---

21) 맥놀이현상이란, 주파수가 비슷한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일으켜서 새로운 합성파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주파수가 약간 다른 두개의 파동에 의한 일종의 간섭현상으로서, 맥놀이에 의해 새로 생긴 파동은 이전 파동의 주파수의 중간값을 갖는 주파수로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느린 새로운 주기로 진폭이 변화하게 된다. 「맥놀이(Beat)」,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2016.1.17. 참조.

22) 이 가운데 「여행」은 남녀관계의 "뒤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본고는 작품에서 "뒤끝"으로 표현되는 감정의 맥놀이현상을 남녀인물간의 존재지평을 압축해 주는 정보기술의 상용화와 관련지어 주목해 본다.

www.kci.go.kr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은 여자주인공이 헤어진 남자가 자신에게 보내리라고 여겨지는 삐삐 신호음의 환청을 듣는 등 삐삐에 대해 강박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통해,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여성인물의 감정 파고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한편에서는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엿볼 수 있는 남녀의 이질적 감정선을 이 작품은 삐삐와 전화라는 매체를 중심소재로 하여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여자주인공이, 자신에게 돌아와 다시 삐삐를 건넨 남자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데에는 그치지 않는 삐삐 신호음의 환청이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남자주인공을 통해 환기되는 이러한 여자주인공의 사연에서뿐만 아니라, 본 서사의 주인공인 남자를 통해서도 감정의 맥놀이현상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PD였던 남자주인공은 리포터로서 그를 돕는 여자주인공과 사귀게 되는데, 여자주인공이 옛 남자에게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녀에 대한 감정의 여파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이 소설의 종결부이다. 남자주인공은 옛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의 발신인이 남편의 옛 여자일 것으로 오인한 여자주인공의 넋두리를 조용히 듣게 되는데, 이 장면은 감정의 맥놀이현상이 정보기기가 열어주는 물리적 토대 위에서 발현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전태일과 쇼걸」은 서사가 전개되는 중간에 광고문구가 직접인용되는 특이한 방식을 취한 작품이다. MOTOROLA 휴대폰(236), 노키아232 휴대폰(239-240), 사람찾기 전화음성서비스 700-(248), 호주・뉴질랜드 이민 광고(242), 중국 교포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한다는 결혼정보회사 에코러스 광고(245) 등이 서사가 전개되는 중간에 삽입되는바, 그 광고 문구와 작품의 내용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고들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의 지구촌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만남의 공백지대를 거쳐 우연하게 재회한 남녀주인공을 통

www.kci.go.kr

해 감정의 맥놀이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시절, 운동권이었던 남자주인공과 전혜린을 흉내 내던 여자주인공은 교제기간을 갖게 되는데, 여자주인공이 전혜린의 탈을 버리고 적극적인 운동권으로 전회하면서 헤어진다. 그런데 이들은 몇 년 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쇼걸>이라는 이질적인 영화가 함께 상영되는 서울의 한 극장 앞에서 재회하는데, 이 작품은 커피숍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 내일 다시 만날 사람들처럼 헤어진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이어지리라는 암시를 한 가운데 끝을 맺는다. 그것은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과 헤어진 다음 과거 여자주인공에게서 생일선물로 받았던 한영애 음악 CD의 새로운 버전을 사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교제를 하면서도 굳이 동지애의 단계에 머무르고자 하였던 이들의 관계가 재회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광고문구들이 내비치는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은 이러한 조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하겠다.

「당신의 나무」를 통해서도 전화라는 매체를 통한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과 감정의 여운을 끌어가는 남녀관계의 양상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임상심리사와 환자의 관계로 만난 남녀주인공은 사적으로 만나던 첫 날, 즉물적 섹스를 하며 그 후 끊어질듯 이어지는 관계를 맺어온다. 이 작품에서 전화와 삐삐는 두 사람 간 관계의 국면을 나타내는 단서로서 자주 등장한다. 교제를 계속하는 동안 잦은 전화와 삐삐, 격렬한 섹스로 자신에게 집착하는 여자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옭죄는 족쇄라고 생각한 남자주인공은 수차례 여자 주인공에게 결별을 선언하지만, 그때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붙잡는 여자주인공을 뿌리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그가 직장을 옮기고 잠적한 경우에도 여자주인공은 남자를 찾아내고 마는데, 전화는 이들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후로 등장한다. 자신을 찾아낸 여자에게 남자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남자 또한 여자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마는 것으로 나타난다.

www.kci.go.kr

이 작품은 전화라는 상존하는 접속의 수단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끊어질듯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음을 마지막의 결별을 통해서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서두는 남자에게 집착하였던 여자가 남자에게 결정적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시점을 현재로 하여 시작한다. 이 마지막의 결별은 이 글의 논점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남자는 결별을 선언한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자는 촉각만으로 여자를 기억할 것이며, 여자에게서 받은 음성사서함의 메시지, 자동응답기의 음성 등을 모두 삭제하였노라고 말한다. 여자의 결별 선언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은 즉물적 섹스로 시작한 이들의 관계에 언어의 어우러짐에서 비롯한 사랑의 교감이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결말부는 서두에서의 결별이 다시 한 번 번복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을 여행하면서 남자는 여자가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 자신의 뇌를 깨부수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왔던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여자의 나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자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하기도 하였던 여행의 막바지에 남자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고 마는데, 여자의 응답이 없는 전화 통화를 통해 그는 여자를 향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서로를 지탱하면서 살고”(③, 236) 싶다는 생각을 전한다. 여기에서 또한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과 감정의 맥놀이현상 간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한편 김영하의 「밀회」, 「마코토」와 같은 작품들은 지구촌으로 압축된 공간성이 또한 오프라인현실에서의 접속 가능성을 낳으면서 감정의 맥놀이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회」에서는 한국과 독일간의 거리라는 공간적 제약을 지우는 지구촌적 현실 하에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남녀관계를 통해 감정의 맥놀이현상을 살필 수 있다. 짝사랑이 오랜 휴지기를 거쳐 마주보는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마코토」를 통해서도 지구촌적 접속의 가능성과 감정의 맥놀이현상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www.kci.go.kr

여기에서 살핀 작품들을 통해 대체로 ‘선 정사 후 애정’의 과정을 거친 (혹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남녀관계의 추이가 <감정 및 접속>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나아가서 특별히 본 절을 통해서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이 감정의 맥놀이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토대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4. 결론

이 글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정보기술의 상용화 및 지구촌적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한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 인물의 존재지평, 나아가서는 소설 장르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둘째, ‘유비쿼터스-시공간성’과 인물의 감정 간의 관련성을 통해 기존의 ‘감정경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란 접속의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존재의 지평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나’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소설의 시공간성이란 소설에서 원론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할 수 있는 바, 2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공간성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고전소설에서부터 ‘오늘날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상호 접맥되면서도 차이점을 노정하는 부분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해볼 수 있었다. 2.1.절에서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존재의 지평을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는 양상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존재 지평의 확장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원점 회귀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논하면서, 현실-유리적 방향으로 확장된 존재의 지평이 단순히 현실로부터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물이 현실에서 보인 삶의 자세의 연장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양자 간의 관계가 상승과 지양의 논리가 배제된

www.kci.go.kr

원점회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고가 보다 방점을 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유비쿼터스한 존재지평의 확장이 이른바 전대 소설에서 이원적(/다층적) 시공간성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초월에 근접하는 함의들을 지님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김영하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비쿼터스-시공간성이 전대 소설의 전통을 계승함과 아울러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2.2.절에서는 먼저 김영하 소설이 정보기술이 상용화된 점, 방송의 수신뿐만 아니라 방송에의 참여까지가 일상화된 점,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점 등에 힘입어 지구촌화된 시공간성 하에서 인물의 존재지평이 현실-관여적 방향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여실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살폈다.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이 소설에서의 우연성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시공간성의 제약으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난 상황을 설정할 경우, 종래의 소설이라면 그것은 우연성으로 간주되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김영하 소설이 나타내 보이는 압축된 시공간성 하에서라면 시공간성의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되기에 우연성이 개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놓여 있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유비쿼터스-시공간성 하에서의 인물 간 관계 양상에 주목하였다. 인물 간 ‘관계’란 시공간성과의 관련 내에서 곧 온・오프라인상의 ‘접속’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하겠기에, 이에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김영하 소설 또한 남녀관계를 주요한 소재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남녀관계를 통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소설에서 즉물적 섹스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 그러한 즉물적 섹스가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의 상황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점을 엿볼 있었다. 그 차이점이란, 즉물적 섹스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감정 및 접속의 문제>와 <즉물적 섹스> 간의 관련성의 정도가 느슨하지만, 즉물적 섹스 이후의 남녀관계의 추이에서는 <감정 및 접속의 문제>가 <즉물적 섹스>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

www.kci.go.kr

을 보인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경향성은 ‘즉물적 섹스’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사항이라 하겠는데, 3.1.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먼저 접속의 접근성이 즉물적 섹스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김영하의 장편『퀴즈쇼』를 통해, 접속의 접근성과 남녀관계의 관련성이라는 동일한 논점을 구성하지만, 그 결과가 앞서 살핀 경향성과 상이하게 드러나는 특질에 또한 주목해 보았다. 이른바 시작부터 감정이 개재된 남녀관계일 경우, 접속의 접근성이 남녀 주인공의 감정 점화에 속도를 더해주는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살폈다. 3.2.절에서는 두 번째의 경향성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온・오프라인 상으로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이 감정의 맥놀이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폈다. 감정의 맥놀이현상이란 서로 다른 파장의 감정선을 지닌 남녀의 관계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양상을 의미한다. 김영하 소설은 대체적으로 즉물적 섹스로부터 시작된 남녀관계의 추이를 통해 흩어졌다 모아지곤 하는 감정의 파장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바, 본고는 상존하는 접속의 가능성이 이러한 감정의 맥놀이현상이 가능토록 하는 물리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글은 ‘오늘날의 소설’에서 재편되고 있는 시공간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국소설사를 통시적・거시적으로 조망한 가운데, 이를 전대 소설과의 관련선상에서 살핌으로써, 과학의 발달에 힘입은 시공간성의 재편이 ‘오늘날의 소설’에 미친 영향을 김영하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23] 아울러 필자의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감정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본다.

23) 김영하의 소설에서 확장하여 ‘오늘날의 소설’ 전반을 통해 이 글에서의 주장을 일반화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www.kci.go.kr

참고문헌

【자 료】

김영하(2015),『퀴즈쇼』(2판), 파주: 문학동네.

_____(2013),『1, 호출』(3판), 파주: 문학동네.

_____(2012),『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3판), 파주: 문학동네.

_____(2011),『3,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파주: 문학동네.

_____(2011),『4, 오빠가 돌아왔다』, 파주: 문학동네.

_____(2010),『아랑은 왜』, 파주: 문학동네.

_____(2010),『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파주: 문학동네.

【논 저】

김만수(2010),「미디어의 보급에 대한 문학의 대응 : 신문에서 인터넷까지」,『한국현대문학연구』32, 한국현대문학회.

김미영(1992),「1920년 전후 한국소설의 크로노토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환(2012),「한국근대소설과 부산의 시・공간성 : 김동리의 <밀다원시대>를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49, 한국현대소설학회.

김은경(2014),『박경리 문학 연구 — ‘움직임動’과 ‘멈춤精’의 상상력』, 소명출판.

김종욱(1998),「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의 시간-공간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설성경(1991),『한국 고전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설성경・박태상(1986),『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이재현(2014),「미디어 이용의 시공간적 매핑-크로노토프 접근과 그 적용」,『언론정보연구』51:1,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임형택(2016),『문학미디어론 — 무한의 시학과 미학, 춘향전 은하계의 탐사로부터』, 소명출판.

전광용(1993),『신소설 연구』, 새문사.

하정일(1998),「한국전쟁의 시공간성과 1960년대 소설의 새로움: 하근찬을 중심으로」,『韓國言語文學』40, 한국언어문학회.

www.kci.go.kr

미하일 바흐친(1988),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허버트 마셜 맥루헌(2011),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Ubiquitous", *The Hutchinson Pocket Dictionary of Difficult Words*, Abingdon: Oxon Helicon Publishing Limited, 2005.

【인터넷 자료】
「유비쿼터스(Ubiquitous)」,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2016.1. 9.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666&cid=40942&categoryId=32851.
「맥놀이(Beat)」,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2016.1.17.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095&cid=40942&categoryId=32237.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일

www.kci.go.kr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Ha Kim's Novels a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Ubiquitous-*Sigongganseong* (時空間性)'

Kim, Eunkyung*

This essay intends to consider the following two problems. One is on the reorganization of *Sigongganseong* in 'the novels of the present time'. Discussions of this problem have been develop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ing ancient novels, *Sinsoseols*, and the modern novels of Korea. The other is on 'the economy of emotion'. I discuss on the problem through an extension of my existing research contents. The arguments about these two problems are continued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on 'the Novels of the present time'.

In relation to the first problem, through Young Ha Kim's novels, it can be discovered that he subtly represents the reorganization of *Sigongganseong*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T. The representations have two directions. One is the 'extension' of *Sigongganseong* in the direction of keeping one's distance from reality, which become first point of issue. The other is the 'compression' of *Sigongganseong* in the direction of in-

* Lecturer, Institute of Liberal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ci.go.kr

volving with reality, which becomes the second debatable ground. I consider that these reorganizations of *Sigongganseong* correspond to the problems of 'prospect in existence' of human beings. That it, the extension of *Sigongganseong* corresponds to the extension of the prospect in existence and the compression of *Sigongganseong* corresponds to the compression of the prospect in existence.

In relation to the first point of issue, I reveal two points. One is 'discontinuity' in the historical stream of Korea novels. Plural *Sigongganseongs* can be found in Young Ha Kim's novels, which consist of *Sigongganseong* in the standard sense and *Sigongganseong* extended by IT. There are heterogeneous aspects of life; the disparate aspects of life are simply in switch. Sublation or transcendence does not exist, in comparison to Korean ancient novels. The other point is 'continuity' in the history of Korea literature. It is possible to catch aspects of transcendence in the events that occur in the *Sigongganseong* extended by IT. It may be safe to say that they succeed the tradition of the ancient novels. In connection with second debatable ground, the 'contingency of literature' is discussed. As a result, it can be disclosesed that 'contingency' has not robbed Young Ha Kim's Novels of their 'probability'. It is proposed that the *Sigongganseong* compressed by the global network is a very resonant reason of such a phenomenon. It is comparable to the 'contingency' of *Sinsoseols* causing the 'improbability'.

In the third section, the problem of emotion in relation to the *Sigongganseong* is discusse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on 'access' through IT gadgets and 'sexual intercourses'. In this regard, the novels of Kim manifest tendencies. Before sexual intercourses, the connection between 'emotion (/access)' and sexual intercourses is tenuous. Such aspects

www.kci.go.kr

of sex are called ‘the practical sex’. The reason for these aspects is seen to be ‘the accessibility of access’ through IT devices. On the other hand, after sex, the connection is closer. Manifest is Kim’s novels is the so-called phenomenon of ‘pre-sex after-emotion (先-情事 後-愛情 現象)’. The ‘ever-present possibility of access’ can be regarded as the physical foundation of such a phenomenon. Depending on the ever-present possibility of the access, the heros and heroines of Kim’s novels repeat partings and reunions. There are drift and loose streams of heterogeneous feelings. This is referred to as ‘the beat phenomenon (*mecnory hyunsang*) of emotion’. The following two points can be proposed a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first, the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Sigongganseong* and it’s impacts on novels in the history of Korea literature; second, the discussion on ‘the economy of emotion’ which focusus on the connection between emotion and the *Sigongganseong*.

www.kci.go.kr

www.kci.go.kr